

# 조급한 취준생 상대 은밀한 사기...390명 등친 목사와 공모자

### 잇을만 하면 또...끊이지 않는 기아차 취업사기

대기업 기아차에 채용시켜주겠다고 금품을 받아 챙긴 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잇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또 기아차 취업 사기야"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 또 채용사기? 피해자 390명 아우성=경찰이 파악한 '기아차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만 390명에 이른다. 이들은 SNS상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향후 대책과 정확한 피해자 숫자, 피해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관련 범죄가 지난 2018년부터 이뤄진 점에 주목,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피해자들은 A 목사가 2년 가까이 문어발 식으로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접근, 돈을 뜯어갔다고 주장한다.

방식도 다양했다. 한 피해자는 '기아차 협력사 사장들이 교인 중에 많은데 일단 협력사 직원으로 서류를 꾸미고 나중에 기아차 정규직으로 파견될 수 있다'며 보증금 형식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처음부터 정직원을 시켜주겠다',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정규직 전환해주겠다', '청년취업패키지로 취업시킬 수 있다' 등 갖은 수법으로 꾀어 피해자에게 뭉개는 5000만원에서 적게는 2000만원까지 받아 갔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성격상 쉬쉬하며 비밀을 유지하는 은밀성도 사태를 키우는 데 한몫을 했다. 피해자들 상당수는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았

"교인 중에 협력사 사장 많다" 2년간 문어발식 접근 돈 뜯어 허위 서류 작성하며 안심 시켜

피해자들 항의에 "나도 속았다" 최고의 일자리에 사기 되풀이 "마지막 채용" 잘못된 인식 한몫

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인 만큼 친인척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입단속을 하는가 하면, 허위 서류(취업공고 서류 등)를 작성하면서 안심시켰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이다.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A 목사는 "다른 브로커 2명에게 나도 속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최근 A 목사가 "얼마나 애가 타셨습니까. 그 동안 말 없이 긴 기간 기다려 주신 분들과 정말 여기 안되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제 부담과 인생을 다 걸고 해결했습니다. 오늘 발표합니다. 공식 통지 갈 것 입니다."라고 보내 온 문자까지 공개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 목사와 브로커로 추정되는 2명을

피자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조치를 내리는 한편, 잠적한 브로커 2명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왜 끊이지 않나=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기아차 채용 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연례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 2004년에는 스포티지 생산라인 증설을 앞두고 노조 간부와 직원·브로커 등 130여명이 연루된 대규모 취업 비리 사건이 발생, 19명이 구속됐다. 노조에 채용 추천권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기아차는 이후 본사에서 채용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채용구조를 전면 바꿨지만 취업사기 사건은 멈추질 않았다.

2007년에는 취직을 미끼로 금품(2200만원)을 받아 가로철편 전(前) 기아차 협력업체 사장이 붙잡히는가 하면, 기아차 고위직을 알고 있다며 소개비를 주면 취업시켜 주겠다고 3400여만원을 가로철편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4년에는 지인이나 친인척 60여명에 32억원을 받은 노조 관계자 4명이 입건됐고, 2016년에는 기아차 채용을 대가로 5명으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정당 간부가 붙잡히기도 했다. 기아차 출신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빌려 90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2018년 5월에는 56명에게 18억여원을 받은 기아차 사내 하청업체 직원, 노조 간부 등 5명이 경찰이 붙잡혔다.

지난해에도 전 기아차 광주공장 한 노조 간부가 취업을 미끼로 29명에게 19억원을



잇을만하면 발생하는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사기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가로챘다가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 왜 기아차인가 =기아차 취업사기 끊이지 않는 데는 기아차가 광주·전남에서 최고의 일자리라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이 열약한 광주·전남에서 기아차는 고액 연봉을 주는 대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광주·전남의 젊은층에게 인기가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신입사원 초봉은 5800만원, 평균 연봉은 8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생산직 채용이 없는데다, 광주형 일자리가 완성되면 기아차 협력사 직원들이 생산직으로 채용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

위기도 채용 사기 피해자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현 채용구조는 본사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된다"면서 "채용절차에 비정상적 접근이 불가능하다. 취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하마터면...대학병원 행패 70대, 음압병동 훼손 아찔

### 발열 증상 격리 권고하자 난동 코로나 방역시스템 무너질 뻔

광주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70대 남성이 의료진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음압 병동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 방역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역 C 대학병원은 최근 병원 응급실 내 음압격리 병실을 훼손한 70대 남성 A씨를 업무 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측은 A씨의 행위로 코로나 환자 진료에 필수시설인 음압격리병실이 한 때 훼손돼 중증 환자 치료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지난 15일 밤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발열 증상에 따라 응급실 음압격리병실로 이동하라는 병원측 권고를 따르지 않고 행패를 부렸다.

### 광주지검, 방역 활동 방해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광주지검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광주지검 코로나19 대응단은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

A씨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 등의 제지로 음압병실로 옮긴 뒤에도 진료 거부 및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주변에 있는 청소·의료기구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음압병동 출입구를 강제로 열어 훼손했다.

극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 ▲입원 또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

음압격리병실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음압격리병실 훼손은 자칫 중증환자 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는 행위 등 방역체계를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수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자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광주·전남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전 기준 381명(광주 284명·전남 97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수심 1.2m 수영장장서 점프 부상...'광주시 등 배상해야'

#### 항소심도 '관리·감독 소홀'

수심 1.2m의 수영장에서 점프 입수를 하던 이용객이 다친 사건과 관련, 수영장 시설의 설치, 관리 및 감독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광주시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2부는 A씨가 광주시와 모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와 보험사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광주 서구 모 회관 수영장에서 자유 수영 시간을 이용, 수영장 1번 레인에 설치된 도약대에서 점프 해 입수를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광주시와 보험사는 A씨에게 2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항소심도 광주시와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광주시는 수영장의 수심(1.2m)이 낮아 도약대를 이용한 점프 입수를 할 경우 이용자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수영장의 각 레인에 도약대를 설치해 두고 수습시간에 점프 입수 수업을 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점프 입수 전 주의를 잘 살피는 등 A씨의 과실이 있는 점을 감안, 광주시와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고 당시 수상안전 요원들은 근무지점을 위반해 안전감시대에 있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도약대를 사용해 점프입수를 하거나 레인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